금주의 법구-〈법구경〉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4월 1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7호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기부도 즐겁고 재미있게 변화하는 불교 보시문화

[해설] 'FUN+Donation', 불교 보시문화 변화 이끌까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불교 각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자비보시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꾸며진 다양한 기부방식이 눈길을 끈다. 기부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에서 자리잡은 기부방식을 활용해 기도와 연관된 보시에 머물러 있는 사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즐거운 기부'가 최신 트렌드

자비실천의 방법인 기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하며, 또 즐기면서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른바 즐거움과 기부를 합친 '퍼네이션'(Fun+Donation)이 그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비롯해 걷기만 하면 기부금이 적립되는 '빅워크', 게임에서 나무를 심으면 실제 나무심기에 동참이 가능한 '트리플래닛'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 등 기념일에 기부를 하는 애착형성형 기부도 자리잡고 있다.

불교계는 최근 이러한 퍼네이션 개념을 기부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불교계 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다.

SNS 활용해 즐거움 확산

아름다운동행은 2014년 아이스버킷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2015년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이연탄맨은 연탄을 지원한 후 아이언맨의 손바닥처럼 연탄모양을 찍어 SNS상에 인증을 하는 캠페인이다. 2015년 797명이 동참해, 83개 가정에 1만 6700장을 전달한데 이어 2016년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캠페인에 참여해 108개 가정에 2만 16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유미란 모금나눔사업팀 팀장은 "봉사를 참여한 분들의 대부분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했음을 SNS를 통해 바로 느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최근 조계종성역화추진본부가 진행하는 '채식데이 기부데이' 캠페인도 카

SNS활용 '아이연맨' 높은 호응
음식 레시피 · 기념 카드 발송도
일선 사찰, 불사 · 기도보시 국한
"스토리텔링, 애착증진 도입해야"

카오톡을 활용한 캠페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캠페인 동참자들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가입하면 매주 목요일 마다 사찰음식 레시피를 받는 것이다. 사찰음식 레시피 제공 후 가입자가 늘어 현재 634명이 가입한 상태다.

스포츠대회 · 기념일 기부 '주목'

여기에 도반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부도 도입되고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이금석)가 지난 4월 18일 개최한 제1회 생명살림 자선골프대회의 경우 1인당 참가비용 30만원에 특별성금 등을 모아 이날 하루만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연했다. 이를 통해 직할교구신도회는 결식아동 돕기에 나선 상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결혼기념일 후원도 눈길을 끈다. 3월 12일 첫 기부가 탄생했다. 기부자인 한대희 씨는 결혼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했으며 후원금 100만원도 기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결혼 등 각종 기념일 후원의 경우 감사문자와 함께 카드를 지속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사찰에 까지는 미치지 않은 상황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사찰 신도 보시 및 기부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도 92.4%가 사찰 보시금을 납부하지만 그 형태가 불전함과 인등기도비, 신도회비 등으로만 구성돼 있다.

서울 조계사 관계자는 "국화축제에서 신도들의 이름을 단 국화조형물로 기부를 받아 조형물 비용을 충당했는데, 호응이 좋았다. 불교의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신도들이 적극 참여가능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금아이디어뱅크' 등을 운영하는 불자 모금전문가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불사모연과 기도보시 등에 국한된 기존 보시문화는 불자수 감소 상황에서 사찰 재정 확보에만 머무를 수 밖에 없다"며 "불교계가 다양한 감동이 섞인 스토리텔링과 애착을 증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자들과 일반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보시 · 기부문화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3일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서 거행됐다. 이 자리서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임을 자각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마주하자"

3일 봉축법요식 봉행… 대선후보들 대거 참석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한 봉축법요식이 전국 2만여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3일 총본산 서울 조계사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열었다. 법요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문재인 · 홍준표 · 안철수 · 심상정 등 대선후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호영 국회정각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과 불자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했다. 각 후보들은 행사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법요식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원로의장 직무대행 세민 스님의 관불로 시작됐다. 또 미국 · 스리랑카대사와 조계사 신도회장단의 헌촉 · 헌향 · 헌다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세월호 가족과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 장기해고노동자 콜트콜텍 대표,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이들이 부처님전에 헌화해 눈길을 끌었다. 세월호 미수습자 조은화 · 허다윤 양 어머니 이금희 · 박은미 씨는 행사 전 자승 스님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상에 오른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 부처'임을 자각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인류정신문화의 날이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대자대비의 연민으로 참나 선원과 참된 생명본연을 만유법계에 천명하신 것"이라며 "이는 본래 생사가 없건만 몸소 생사로써 중생들의 무명의 집착에서 벗어나면 본래 부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출세한 거룩한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 표어 의미 담아
해고노동자 · 성소수자 참여
1만 사부대중 조계사 운집
전국 2만여 사찰서도 봉행

이날 자승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자성이 청정한 줄 알게 되면 순간순간 대하는 온 중생을 부처로서 마주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본래 면목을 드러내니 누구 하나 주인공 아님이 없다.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이치를 바로 알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세상의 풍요를 위해 땀흘린 노동자의 옷깃에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업가의 열린 미소에서, 자연과 더불어 뿌린 대로 거두는 농민의 손길에서, 상처받은 이웃을 얼싸안는 시민의 아름다운 품에서 우리는 부처의 세상을 본다"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송수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서 "25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고통 받고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몸소 사바세계에 오셨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차별 없는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셨다"면서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상황을 겪었으며, 지금도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요식서 진행된 조계종 불자대상 시상식에서는 안동일 동산반야회 이사장, 정상석 시인, 금나나 박사,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조계사를 찾으면서 일주문 앞 우정국로는 사전투표 독려와 선거운동 열기로 가득찼다. 〈관련 기사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국대, 새 교훈 '지혜 · 자비 · 정진'

개교 111주년 기념식서 선포… 후원 캠페인도 진행

동국대(총장 보광)가 새로운 교훈을 발표했다. 동국대는 5월 1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11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교훈인 '지혜(智慧) · 자비(慈悲) · 정진(精進)'을 공식 선포했다.

본래 동국대의 교훈은 자리이타를 상징하는 '섭심(攝心) · 신실(信實) · 자애(慈愛) · 도세(度世)'였다. 하지만 1934년에 제정된 기존 교훈이 다소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 새 교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동국대는 교훈재정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설문조사 등의 방법과 토론 및 연구를 진행하고, 이번 기념식에 앞서 새로운 교훈을 선포했다.

동국대는 "새로 정립된 교훈 '지혜 · 자비 · 정진'은 기존교훈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구성원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교 후원 캠페인인 '동국사랑 1 · 1 · 1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는 동국대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시작하는 소액 정기기부 캠페인으로 '1인이 1달에 1만원 이상 학교를 후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동국대는 이 기부금을 학교전략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FACT CHECK Q&A – 佛紀에 대한 진실 A5

다음 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법보시

부처님 오신날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불반니원경〉

운수납자 합장